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식 연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북아 경제중심을 열어 가는 희망찬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잡을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기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40만평이 넘는 이 넓은 대지 위에 첨단 바이오테크의 세계가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기공식이 있기까지 애써 주신 이원종 지사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 경제를 떠받쳐 준 주력산업이 내일의 생존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산업이 그 해답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화 혁명에 이어 '제4의 물결'이라 불리는 바이오 산업은 생명과 건강은

물론 식량·환경·전자 등 여타 산업에 폭넓게 응용되면서 21세기를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산업을 빼놓고는 국가경쟁력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55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바이오 시장은 향후 10년 내에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바이오 산업에 엄청난 연구개발 투자를 해 왔고, 신약과 바이오 칩 개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1년이 뒤처지면 5년, 10년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기술수준이나 시장규모에 있어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바이오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I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산·학·연이 연계하여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원천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2012년까지 세계 7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1.3%에서 12%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기공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R&D 허브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송단지가 세계 유수의 바이오단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립보건원을 비롯한 4개 국가기관의 조기 이전과 보건과학기술원 등 각종 지원기관의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바이오 연구소와 산업체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조세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하여 산·학·연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지방이 독자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국가발전의 역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가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나가는 것은 바로 지방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지방 스스로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지방화는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도로·공항과 같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창에 IT산업단지를, 이곳 오송에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며 어느 지자체보다 도전적이고 창조적으로 미래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바이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보여 주신 충북도민 여러분의 뛰어난 단결력과 추진력도 있습니다. 지방화의 선두주자다운 면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충북의 역량과 지혜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데 어우러질 때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분명히 성공적인 개발모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송단지의 성공은 충북의 비전인 '바이오토피아'는 물론 나아가 '바이오 코리아'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희망찬 사업에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합시다. 그래서 충북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기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충북도민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